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the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Who Are Married to Korean M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성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교 수 이 영 실*
성결대학교 복지발전연구소
다문화상담연구원 조 명 희**
성결대학교 복지발전연구소
가족치료연구원 홍 성 희**

Dept. of Social Welfare Sungkyul University
Professor Lee, Young-Sil
Institute for Welfare Development, Sungkyul University
Researcher Cho, Myoung-Hee
Institute for Welfare Development, Sungkyul University
Researcher Hong, Sung-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 문헌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immigrant women who are married to Korean men and who live in a multicultural family situation in Gyeonggi-do. These women experience acculturative stress and marital conflict and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how social support seeks to mediate the effects of those stressors. The women in this study participated in activities

* 주저자 : 이영실(ysl8585@hanmail.net)

** 교신저자 : 조명희(lovelytina56@hanmail.net), 홍성희(mary221@hanmail.net)

and received services from one of Gyeonggi-do Province's civic organizations, religious organizations, or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such as the Social Welfare Agency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n order to verify the study's hypothesis, the researchers used the following statistical analytical methods : t-test, two-way ANOVA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Analysis of the study's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st degree of marital conflict was found in the sub-zones and variables that were personal. Those variable were : the difference in mindset and values (personal domain), economic problems (communal living area), a child's upbringing and education issues (third party area), and the participant's sex life (in the marital relationship). The hypothesis was tested using the research model validation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riage migration females' acculturative stress and the impact of that stress on marriage conflict,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It identified that a direct correlation existed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marriage conflict; where a higher degree of acculturative stress was present, a higher degree of marriage conflict was found. Second, the study found a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correlation and relationship ($\beta=.208$, $p<0.05$) between the acculturative stress of the marriage migration female and material support. In other words, the material support can be seen as having a moderating effect on the acculturative stress, which i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marital conflict, which is the dependent variable.

Key Words : 결혼이주여성 (immigrant women who are married to Korean men), 문화적응스트레스 (acculturative stress), 부부갈등 (marital conflict),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조절효과 (mediating effect)

I.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 정치, 문화, 통신의 교류가 자유롭고 빈번해지고 있으며, 국가 간의 이주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이동이 1990년대 초부터 농촌총각과 조선족 처녀들의 결혼을 시작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 즉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사회로 이주한 여성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통계청 자료(2012)에 의한 국제결혼 현황추이에서 2000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 건수가 불과 6,945건 이었던 것이 2003년 18,751 건에서 2005

년 30,719건, 2009년에는 25,142 건, 2010년에는 26,274건에 달한다. 불과 10년 만에 3배의 증가를 보이며 2011년 국제결혼 중 74.8%가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 즉, 결혼이주여성이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성이 늘어남에 따라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통계청 자료에서 외국인과의 이혼을 살펴보면 2000년 총 이혼건수 119,455에서 외국인과의 이혼은 1,498건으로 1.3%였으나 2010년에는 총 이혼건수 116,858에서 외국인과의 이혼은 11,245로 외국인과의 이혼은 9.6%이며 외국인과의 이혼 중 외국여성과의 이혼은 70.3%에 이르는데, 결혼이주여성성이 겪는 부부갈등의 심각성은 이혼율에서 명확하게 표출

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부부에 관한 선행연구들 살펴보면, 인구학적 차이로 인한 결혼생활의 어려움(박진옥, 2011; 김두섭·이명진, 2007; 이영남, 2011), 문화차이로 인한 부부 및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 심한 경우 우울, 무기력감, 사회적 편견 등(이금연, 2003; 양철호 외, 2003; 신경희, 2004; 양순미, 2006; 김오남, 2006; 김현숙, 2007; 양옥경 외, 2009),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중되는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한경남, 2012; 김영옥, 2012; 김혜선, 2012; 정정순, 2011), 경제적 어려움(박형식, 2006; 이재경, 2009) 등은 결혼이주여성 부부가 내국인 부부보다 결혼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고 부부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긴장이나 불안 등은 이들 부부가 가중된 스트레스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부갈등이 야기되고 별거, 이혼의 결과를 가져 오며(양철호·김영자·손순용, 2003; 김오남, 2006). 가족의 해체를 가중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부 및 자녀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일으켜 상호간 갈등관계로 발전하게 된다(김오남, 2006; 최명선·곽민정, 2008)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갈등요인 중 문화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관계를 불안 및 긴장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적 차이로 오는 문화적 충돌과 갈등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는데,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와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요인(노하나, 2007; 양옥경, 2009; 권복순, 2009; 이진숙, 2010; 권명희, 2011),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부부적응(윤정숙, 2004; 김혜선, 2011; 구차순, 2007; 홍달아기·채옥희, 2006; 김오남, 2005, 2007; 노하나, 2007; 홍미기, 2009; 최송식·김현

숙·김희재, 2010) 등 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문화적 환경이나 차이, 부부갈등 및 적응적 상황이나 조건 등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고, 이들 부부가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이나 부부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 부부가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부 부부들은 부부갈등이나 부부부적응으로 인해 가족을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주여성 부부에게 주어진 문화적응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지하고 조정하면서 대처하느냐에 관련이 있다. 최근 결혼이주여성이나 이들의 부부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과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들은 이 둘 사이의 변수사이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Finch, 2003; Smith, 2005; Fincham, 2003; 김오남, 2005, 2007; 노하나, 2006; 김혜미·김선화(2008), 김정아·김인경, 2011; 이규은·염영희·장혜경, 2011; 이신영·정현희, 2010; 이신영·정현희(2010), ; 김희수, 2010; 주미연, 2010; 장수지, 2010; 여진주, 2010).

부부적응을 향상시키거나 부부갈등을 줄이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 중,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Miller, 1991; Charles, 1993; Schneider & Ludtke, 1996; Menjivar, 2000; Neufeld et al. 2002; Ataca & Berry, 2002; Fincham, 2003; Tummala-Narra, 2004)을 살펴보면, 새로운 문화를 접한 이주여성은 배우자, 부모, 친척과 가족치료 상담가나 정신건강전문가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의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사회적 지지와 같은 조절 및 매개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에게도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한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해당되며 이들을 위한 부부갈등해소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시 ‘사회적 지지’라는 변인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결혼이주여성 부부는 내국인 부부와 달리 언어, 관습, 가치관, 종교 등 문화적 차이를 안고 부부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내국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여러 가지 가족의 내적 및 외적 문제를 겪게 된다. 결혼이주여성 부부는 문화적응관련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데, 누적된 스트레스 관련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들 부부는 긴장과 위기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부부간 갈등으로 인해 별가, 이혼 및 가족해체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변화순, 1994; 최금혜, 2006; 김혜미·김선화, 2008; 고은비, 2009; Noller & Fitzpatrick, 1990; Yeh & Inose, 2003)를 살펴보면, 이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감소하는데는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사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주로 실태 조사 결과이자 단편적인 연구 위주로 이루어져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언어, 가족, 교육, 사회, 심리 등의 단편적인 측면에서의 관계성과 효과성을 살펴보는 데 그침으로 대안과 해결책을 찾는데 한계가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단편적이고 직접적 상관관계에서 연구결과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각적으로 상호역동적인 대안을 고려하고 연구함으

로써,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완충도구로서, 이들이 문화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대처기능을 촉진하고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역량강화를 고취시켜 부부갈등을 줄이는데 조절기능을 한다고 판단되므로, 사회적 지지를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대한 조절변수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며 연구결과를 통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감소를 위한 사회적 지지의 실천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적응스트레스,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1)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Redfield, Linton과 Herskovits(1936)가 처음으로 두 문화에 속한 개인들의 집단구성원들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의 접촉을 하게 되면서 한쪽 혹은 양쪽집단의 원래 문화양상으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했고 Willians와 Berry(1991)는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겪는 다양한 변화, Kagan과 Cohen(1990)은 한문화의 구성원들의 행동과 가치가 다른 문화와 접한 결과로서 변화되는 것, Cabassa(2003)는 이주해온 집단의 문화와 토착집단의 문화 사이에 심리적·사회적 교환으로 집단의 문화

모두에 대한 적응이라고 정의하였다. 문화적응은 Sandhu와 Asrabadi(1994), Berry(1997), Finch와 Vega(2003) 등 여러 학자에 의해 시대적 배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문화적응의 개념적 정의가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특히, Berry(1997, 2005)는 문화적응과정을 집단과 개인의 문화적응수준으로 나누는데, 이러한 문화적응과정을 4개 유형의 과정을 보았는데, 이는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이며, 이러한 네 가지 과정유형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있다(남효진, 2007; 진애경, 2009; 이지영, 2011; 김민정, 2011; 진영선, 2011).

Searle와 Ward(1990), Ward(1996), Hovey와 Magana(2002) 등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문화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으로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자 할 때, 개인 또는 집단차원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Berry와 Kim(1988), Lazarus와 Folkman(1984) 등에 따르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개인들이 특정한 심리적인 적응과 도전적인 환경적 요구에 직면했을 때 겪는 도전적인 생활 사건들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았으며, 지배적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으며,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여러 연구자들(Berry, 1980; Lazarus & Folkman, 1984; Spivack, 1985; Coyne. et al, 1981; Mitchell, 1973; Billing & Moos, 1981)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설명할 때 스트레스대처적응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개인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대처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환경 간 갈등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Sandhu와 Asrabadi(1994)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을 규명하고 측정척도를 개발했는데, 그 영역은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기타 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등이 있다.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문화적응스트레스척도는 국내연구(김종국, 2008; 이

수연, 2009; 권복순, 2009; 경수영, 2010; 임은미·정성진·이수진, 2010; 이진숙, 2010; 안준희·조정희, 2011) 등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집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신뢰도가 높아 국내문화적응스트레스의 연구척도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도 국내연구에서 사용한 Sandhu와 Asrabadi(1994)의 척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2) 부부갈등

부부갈등에 대한 초기 연구는 1990년대 가족관계학, 심리학, 사회학, 종교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작하였다. 부부갈등은 갈등이론적 입장, 기능주의적 입장, 가족관계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Sprey(1971)는 구조기능적 갈등이론을 가족연구에 처음으로 적용시킨 대표적인 학자로서 가족갈등을 희소자원, 경쟁적 수단, 양립 불가능한 목적 또는 이러한 것들이 결합한 것에 대한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적대감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Coser(1964)는 갈등이 새로운 제도와 규범을 만들어 갈등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기능주의 입장으로 보았으며, 사회체계의 지속적인 적응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갈등이론이나 기능주의 이론의 거시적 관점과는 달리 Galvin과 Brommel(1986)과 Coleman(1984)과 같은 학자들은 갈등을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갈등을 정의하였고 가족관계적 입장은 부부간의 갈등을 부부 간 심리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개인의 심리상태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내적 욕구충돌이라는 설명을 대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부부갈등이란 부부간에 욕구가 상대방과 상충하면서 생기는 문제들로 보았으며 본 연구도 이러한 의미로 부부갈등을 정의하고자 한다.

부부갈등의 국내 선행연구(윤양현, 1987; 이영실, 1989; 길미령, 1990; 김영자, 1992; 이신영, 1983; 김혜경, 1997; 이경희, 1998; 박태영, 1998;

이미영·박해인, 1995; 최선희·전명희, 1999; 조유리, 2000; 이영자·장경애, 2002; 김오남, 2006; 유희남·김영희, 2011; 양영숙, 2008)에서는 부부갈등의 공통적 하위영역을 개인적 갈등영역, 부부관계적 갈등영역, 공동생활 갈등영역, 제 삼자 갈등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부부갈등의 네 가지 하위 척도를 본 연구의 척도로 사용하고 자 한다.

Blood와 Wolfe(1960), Kulik와 Bareli(1997), Leivens(1998), Busby, Holeman과 Taniguch(2001), Ataca와 Berry(2002) 등은 부부갈등을 설명하는 주요이론으로서는 자원이론, 성역할이론, 관계성이론, 그리고 문화적응이론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이들 이론 중 한 이론을 적용하여 부부갈등을 볼 경우 이론자체가 갖는 한계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주장들이 부부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문화적 수준의 변인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부부갈등을 설명하는데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자원, 성역할, 관계성, 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내는 네 가지 이론들로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에 대한 Cobb(1976), Dean과 Lin(1977), Thoits(1982), Cohen과 Hoberman(1983), Kaplan 외(1983), Wills(1985), Heller, Swindel과 Dusenburg(1986), Nolten(1994) 등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 등의 인간 안에서의 상황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근거로 한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되는 친사회적 행동 또는 태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조직, 전문가 등 여러 지지 원으로부터 제공

되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사회적 지지를 정의하였다.

그동안 여러 학자들(House와 Kahn, 1985 : Lin, 1986 : Kessler와 McLeod, 1985 : Krause, 1986 : Thoits, 1982 : Cohen와 Wills, 1985) 등은 사회적 지지의 개념화를 위해 노력은 해왔으나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이나 구성요인에 대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은 사회적 지지관련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위영역을 사회적 지지 척도로 삼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의 이론을 설명하고자 할 때 완충효과 이론과 주 효과 이론, 매개효과와 악화효과 이론을 제시한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완충효과 이론과 주 효과 이론(Cobb, 1979; Vaux, 1981)을 들 수 있는데, 완충효과 이론은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며, 주 효과 이론은 스트레스에 관계없이 개인의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박지원(1985)은 여러 국외 연구자들이 개념화한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을 직접적 지지와 간접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직접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에서 지지욕구의 충족정도를 반영해 주는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 등 직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정도이며 간접적 지지는 실제 상황에서 사회적 구성원을 통해 제공받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의 정도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는데, 한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국외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박지원(1985)이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이며, 이 척도는 이경림(2007), 김나영(2007), 남순동(2009), 선수경(2010), 박주연(2011), 김미정(2012) 등은 원척도 그대로 사용했고 이경선(2005), 박윤숙(2006), 채현택(2006), 김미혜(2006), 이혜경(2007), 김종국(2008), 남인숙·안숙

희(2011), 김나예(2012) 등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했는데,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검증이 되어 적합한 척도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척도를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이소래(1977)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김나영(2007)이가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적합하도록 다시 수정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사회적 지지 유형 즉,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유형인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정보적 지지를 사회적 지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1)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문화적응은 국제결혼, 이민, 세계화 등에 의해 결혼이주여성 자신의 나라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생물학적, 문화적, 심리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관계로 본다(Berry, Kim & Boski, 1987). Berry(2005)는 문화적응 과정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단계로 보았고,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은 자발적으로 결혼을 선택했는지, 혹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책임지기 위했는지, 출생국의 문화와 이들 개인의 심리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여 적응과정에서 야기되는 일종의 스트레스이며 (McClurg, 2007), Berry와 그의 동료들(1987)는 이민자들은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주거 및 주변 환경, 음식, 경제, 언어, 사회제도, 대인관계 및 정서나 행동 등을 포함한 심리, 정서적 차원 등 변화를 겪을 때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일어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민자는 실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들의 모국에서의 생활과는 매우 다른 커다란 질적, 양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들의 개인적 환경에 따라서 문화적응 관련 문제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LarZarus와 Folkman(1984)은 이민자들이 겪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이주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일전기간의 총체적 스트레스라고 했다. Burman과 Margolin(1992), Johnson과 Warren(1994), Gorlib과 Hooley(1988) Fincham(2003) 등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스트레스나 건강위험인자로 보았고, 특히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당사자인 본인과 남편의 문화적 태도와 행동이 차이가 있다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만성적 스트레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야기하며 부부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Muller-Dincu(1981), Chai(1983), Elschenbroich(1988), Song-Kim(1992), Nah(1993) 등의 연구결과를 보면, 결혼생활에서 문화 간 차이가 클수록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관계를 다룬 박종삼(1983), 양선화(2004), 신경희(2005), 심선진(2004), 김오남(2006) 등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Kim(1979), Muller-Dincu(1981), Chai(1983), Elschenbroich(1988), Song-Kim(1992), Nah(1993), 성지혜(1996), Baltas와 Steptoe(2000) 등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은 문화적 차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결혼생활에서 문화 간 차이가 클수록 부부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오남(2006)은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며, 부부갈등의 여러 요인 중 문화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연구결과에 밝혀졌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연구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부부의 부적응으로 야

기되는 부부갈등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하여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둠으로써 부부갈등의 다양한 해결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력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

결혼이주여성은 타문화 생활권에서 언어적응, 자녀 양육, 부부간 문화 차이 등 문화적응(acclulturation)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에 관련되는 기타 변인들로는 개인의 성격, 사회적 지지, 대처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소유여부, 문화적응의 방식 및 인구학적 변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대처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Rhee(2003), Finch(2003), Rhee(2003), Finch(2003), Martin-Schallmoser(2003), Smith(2005) 등 문화적응 연구에서도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인데, 이민자, 이주자, 체류자들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이주자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고 다양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aidoo(1985), Smith(2005) 등은 다양한 이민여성, 노동자, 이민가족, 유학생, 망명자, 임시체류자, 임시거주자, 관광객 등과 같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지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ovey와 Magna(2002)의 이주노동자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불안 간의 관계에 연구를 살펴

보면, 낮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거의 없을 때, 문화적응스트레스 증가와 관련 있음을 밝혀냈고 Yeh와 Inose(2002)도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지지로, 특히 종교활동의 지지가 강력한 사회적 지지체계 중 하나로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Rhee(2003)와 Finch(2003)의 연구에서도 이주민의 자주모임 또는 모국친구들과의 만남의 여부가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Poyrazli 등(2004)은 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 인구학적 요인,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준다고 보고하였다. Smith(2005)의 캐나다 난민자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여러 체계적 시도에 직면하게 되는 이주자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금혜(2006), 노하나(2006), 김오남(2007), 김윤나·서보람(2007), 김종국·조아미(2008), 김혜미·김선화(2008), 나동석·강석화(2010), 김민정 (2011), 김정아·김인경(2011), 이규은·염영희·장혜경(2011) 등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간의 연구결과를 보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간의 연구가 대부분상관관계나 상호간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승중(199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한 재한 유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지각하는 재한 유학생들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고 노유성(2004)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요인 연구에서,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 절친한 모국인 친구, 모국인 친구만큼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 등과 같은 사회적 연결망이 있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을

보였다. 또한 노하나(2006)의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의 상관관계를 밝혀냈고, 사회적 지지 중 비공식적인 지지 체계인 의미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인의 모국문화를 이해해 줄 수 있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미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고 전반적으로 같은 국가 출신의 친구들이나 의미있는 타자, 현지에서 사는 사람들의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는 모두 이민자, 체류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조절효과가 있는지 조사연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3) 사회적 지지와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와 부부갈등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원이론을 토대로 한 Barnes(1999), Kulik와 Bareli(1997), Min(2001), Ataca와 Berry(2002), Xu와 Lai(2002), Fincham(2003), 박태영(1998), 조혜성(2003), 김오남(2005) 등 연구에서는 물질적 자원, 친구, 가족 등으로 받는 사회적 지지 요인들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외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Rose, Miorwsky와 Goldsteen(1990)은 결혼만족의 요인 중 부부갈등은 전형적으로 모든 형태들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부부갈등으로 인한 우울, 불안, 그리고 심리적 문제들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위험행동을 감소시키며, 정서적 회복을 도와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Schmiege와 Hall(1996), Coleman(1996), Patterson(2004) 등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받

지 않고 있는 부부는 부부관계에서도 부부갈등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부보다도 부부갈등이 더 높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Julien, Tremblay, Belannger, Dube, Begin과 Boithiller (2000), Proulx, Helms와 Payne(2004), Oliner (1989) 등 연구를 보면, 경제관리, 시댁과의 관계, 정서적 어려움 등에 대한 지지 중 공식적 자원체계인 친구로부터 가장 많이 받고 상호적 영향을 받으며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는 부부갈등을 감소시키고 결혼만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Baitas와 Steptoe(2000), 김오남(2005) 등 연구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부부갈등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Menjivar (2000), Neufeld, Harrison, Stewart, Hughes과 Spitzer (2002), Tummala-Narra(2004) 등의 연구결과에서는 새로운 문화에 온 결혼이주여성은 배우자, 부모, 친척과 정신과의사, 임상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 상담 및 치료 전문가 등 상호 독립적인 지지체계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own (2001), Killian(2001) 등의 연구에서 친구나 이웃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지지는 결혼안정성을 강화시키며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고 친밀한 가족의 지지는 부부관계의 긴장을 낮추어 부부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애경(2003), 김오남(2005), 장진아·신희천(2006), 장지혜(2007), 강나정(2008), 김혜경(2008), 김시연(2008), 강순정(2008), 정봉희·김혜경(2009), 조정혜(2009), 김희수(2010), 주미연(2010), 이신영(2010), 공미혜·오세자(2010), 장수지(2010), 여진주(2010) 등 국내 선행연구에서 나온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부부갈등이 낮아지고, 배우자나 가족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여성일수록 부부갈등이 줄어들며,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감소됨으로써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도 도움을 주

며,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 요인인 부부갈등과 관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을 부부간 정서적 지지 등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감소시키며, 부부갈등지각이 낮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나며, 낮았는데, 이는 부부갈등 지각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이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며 부부불화로 인해 부부갈등이 초래되는 데 이를 위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통해서 부부갈등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부부갈등에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조절과가 있는지 조사연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 및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적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설 1>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는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2. 측정도구

1) 문화적응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국내 연구에서 김오남(2006), 김양희(2007), 이운효(2007), 노하나(2007), 인수영(2008), 양옥경 외(2009), 홍미기(2009), 등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해온 척도로,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는 7가지 하위영역 즉,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기타(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이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 .901로, 본 연구에서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척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했다.

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척도는 박지원(1985)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지지를 국내연구에서 윤혜정(1993), 엄인숙(2008), 이현우(2011), 강운경(2012) 등이 결혼이주여성에게 맞게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묻는 25문항으로 수정·보완한 척도로,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네 가지 하위유형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조사도구의 신뢰도 즉, Cronbach's α 계수 .904로,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 척도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척도를 조절변수로 사용했다.

3) 부부갈등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척도는 김오남(2006)이 만든 부부갈등 척도로, 이 척도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이영실, 1989; 김갑숙, 1991; 이창만, 1992; 홍원표, 1993; 이경희, 1998; 조유리, 2000)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부갈등 척도가 개발된 것으로, 이 척도는 결혼이주여성에 맞게 부부갈등을 묻는 1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척도는 부부갈등의 네 개의 하위영역 즉, 개인적 갈등영역, 부부관계 갈등영역, 셋째, 공동생활 갈등영역, 제삼자 갈등영역이며 본 연구에서 응답방식은 현재 부부생활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부부갈등의 정도가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9$ 로, 본 연구에서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에 대한 척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4) 통제변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영향을 대해 보다 정밀한 검증을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혼이주여성의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 남편연령, 결혼기간, 자녀수, 최종학력, 가족 월 소득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은 경기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기지역 소재 복지관,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관련 센터,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

로 한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배포하여 180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의 수는 150부이다. 표본의 추출은 비확률표본추출방법 중 임의 표본추출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를 고려하여 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5개 국어로 각각 제작하여 1차적으로 제작된 설문지를 번역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의 번역 설문지는 각 나라 출신의 한국어 통역가 즉, 본국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동시에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어 설문지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여 동일한 의미를 측정하도록 했고 설문지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조사 대상자는 설문지 문항에 비해 적은 인원이지만 조사 대상자는 성결대 복지발전연구소 연구원들이 설문하기전 이들에게 설문지에 대한 내용을 수차례 교육을 함으로써 설문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설문하도록 하여 의미있는 연구결과 도출에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4. 자료분석

최종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검토작업(data cleaning)을 진행한 후, SPSS 16.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 검증을 위하여 사용하고자는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검증을 위한 기초분석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실태를 위해 빈도분석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t-test,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설 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

레스는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직접효과모형 분석과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고 <가설 2>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인 본인 및 남편의 연령, 결혼기간, 자녀수, 가족월소득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표 1>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20대가 54.0%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의 연령대는 40대가 60.7%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응답자와 배우자의 나이 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혼기간에서는 24개월 이하가 43.3%, 25개월-48개월 이하가 24.0%로 전체의 6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결혼기간이 짧아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더욱 더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조사대상자의 자녀수에서는 1명이 4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기간이 48개월 이하인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으므로 자녀수가 1명 정도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혼기간이 73개월 이하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많으므로 자녀수가 2명 정도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N=150)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81	54.0
	30대	59	39.3
	40대 이상	10	6.7
남편연령	20대	2	1.3
	30대	44	29.3
	40대	91	60.7
	50대 이상	13	8.7
결혼기간	24개월 이하	65	43.3
	25-48개월 이하	36	24.0
	49개월-72개월 이하	25	16.7
	73개월 이상	24	16.0
자녀수	없음	30	20.0
	1명	69	46.0
	2명	33	22.0
	3명이상	18	12.0
가족 월소득	100만원 이하	13	8.7
	101 - 200만원	68	45.3
	201 - 300만원	57	38.0
	301 - 400만원	10	6.7
	400만원 이상	2	1.3

〈표 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N=150)

변인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지각된 차별감	2.64	0.99
	향수병	2.79	1.04
	지각된 적대감	2.54	0.95
	두려움	2.59	0.97
	문화충격	2.95	1.10
	죄책감	2.72	1.02
	기타(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2.68	1.00
전 체		2.70	1.01

가족평균 월 소득에서는 101-200만원이 45.3%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들의 취업프로그램 등이 결혼이주여성 관련 건강가정센터, 복지관 등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국적 취득유무에서는 있음이 70.0%, 없음이 30.0%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국적 취득자가 70%되지만 아직도 30%정도가 한국국적 취득이 없는 것은 이들이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은 영향도 있으리라 본다.

2. 각 변인들에 대한 기술 분석

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실태

조사대상자 문화적응스트레스 변수의 평균은 5점 척도에서 2.70점을 나타냈고, 하위변인들은 지각된 차별감 평균 2.64점, 향수병 평균 2.79점, 지각된 적대감 평균 2.54점, 두려움 평균 2.59점, 문화충격 평균 2.95, 죄책감 평균 2.72, 기타(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평균 2.68이었다. 하위변인들 평균 가운데 문화충격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향수병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적대감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연구한 선행연구들 중 윤영주(2001), 김오남(2005), 김지철(2011)에서도 향수병 및 문화충격이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표 2>참조).

2)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실태

조사대상자 부부갈등 변수의 평균은 5점 척도에서 2.45점을 나타냈고, 하위변인들은 개인적 갈등영역 평균 2.58점, 부부관계 갈등영역 평균 2.24점, 공동생활 갈등영역 평균 2.48점, 제삼자 갈등영역 평균 2.47점이었다. 하위변인들 평균 가운데 개인적 갈등영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공동생활 갈등영역으로 나타났고, 부부관계적 갈등영역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부부갈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 중 김오남(2005), 최정자(2010), 이현우(2010)에서도 개인적 갈등영역 및 공동생활 갈등영역이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표 3>참조).

3) 사회적 지지 실태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4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전체 평균은 5점 척도에서 3.40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 중 정보적 지지가 평균 3.5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지지가 평균 3.42, 평가적 지지가 평균 3.40, 물질적 지지가 평균 3.28순으로 나타났다(<표 4>참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연구한

(표 3)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정도(N=150)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전체부부갈등	2.45	.86
[개인적 갈등영역]	2.58	1.024
성격차이	2.57	1.237
생활습관차이	2.47	1.256
사고방식 및 가치관 차이	2.76	1.152
[부부관계 갈등영역]	2.24	.864
성생활	2.34	1.195
애정이나 관심 부족	2.29	1.144
외도나 부정문제	2.08	1.071
[공동생활 갈등영역]	2.48	1.07
경제적 문제	2.81	1.339
주거, 주택 문제	2.15	1.264
가족여가활동	2.55	1.398
[제 삼자 갈등영역]	2.47	1.08
친척 및 인척관계	2.56	1.228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2.58	1.359
사회활동	2.29	1.218

(표 4)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정도(N=150)

변수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지지 정도	정서적 지지	3.42	0.75
	정보적 지지	3.52	0.77
	평가적 지지	3.40	0.74
	물질적 지지	3.28	0.72
전 체		3.40	0.74

선행연구들 중 김성철(2010), 김지철(2010), 고은주(2011), 강윤경(2012)에서도 정보적 지지 및 정서적 지지가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표 3>참조).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차

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검증방법으로는 독립표본 차이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으로는 반복 t검증을 통해 정확하게 차이를 검증하는 Tukey 방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부갈등은 연령, 결혼기간, 자녀수, 최종학력, 가족월소득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수, 가족월소득에 대한 변수가 부부갈등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부갈등

변수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P
연령	20대	76	2.81	.638	1.065	.366
	30대	61	2.68	.593		
	40대 이상	13	2.58	.492		
남편연령	20대	4	2.64	.615	.749	.560
	30대	42	2.66	.518		
	40대	89	2.72	.776		
	50대 이상	15	2.64	.593		
결혼기간	24개월 이하	63	2.68	.586	.204	.827
	25개월-48개월 이하	35	2.58	.636		
	49개월-72개월 이하	26	2.64	.649		
	73개월 이상	26	2.62	.537		
자녀수	없음	32	2.70	.457	.481	.027*
	1명	62	2.59	.652		
	2명	31	2.64	.625		
	3명이상	18	2.95	.148		
가족평균 월소득	100만원 미만	12	2.77	.493	1.339	.007**
	101-200만원	59	2.57	.580		
	201-300만원	53	2.56	.551		
	301-400만원	14	2.63	.830		
	400만원 이상	6	3.14	.248		

*p<0.05, **p<0.01

자녀수에 대한 F통계량값은 .481이고 유의확률은 .027으로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자녀수에 따라 부부갈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른 부부갈등 차이는 3명 이상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없음 2.70, 2명 2.64, 1명 2.59순으로 나타났는데, 즉 자녀수 3명 이상의 결혼이주여성인 경우 부부갈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족월소득에 대한 F통계량값은 4.306이고 유의확률은 .040으로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월소득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월소득에 따른 부부갈등 차이는 400만원 이상의 월소

득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1-400만원이 2.63, 201-300만원이 2.56, 101-200만원이 2.57, 100만원 미만이 2.77로 나타났다. 즉 가족월소득에 부부갈등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변수들 간 상관관계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은 결혼기간(r=.460, p<.01), 결혼기간은 자녀수(r=.535, p<.01), 최종학력은 가족월소득(r=.285, p<.01)과 정적관계를 보였으며, 남편연령은 최종학력(r=.231, p<.01), 자녀수는 가족월소득(r=.185, p<.01)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즉 결혼

이주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기간이 길었으며, 결혼기간이 길수록 자녀수가 많았으며,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월소득이 높고, 반면에 남편연령이 많을수록 최종학력이 낮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족월소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수 중 정보적 지지($r=.311, p<.01$), 평가적 지지($r=.299, p<.01$)와 부적 관계를

보였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보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인 부부갈등은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r=.237, p<.01$) 및 물질적 지지($r=.188, p<.01$)와 정적 관계를 보였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 결혼기간($r=.144, p<.05$) 및 조절변수인 평가적 지지($r=.135, p<.05$)는 부적관계를 보였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물질적 지지가 높을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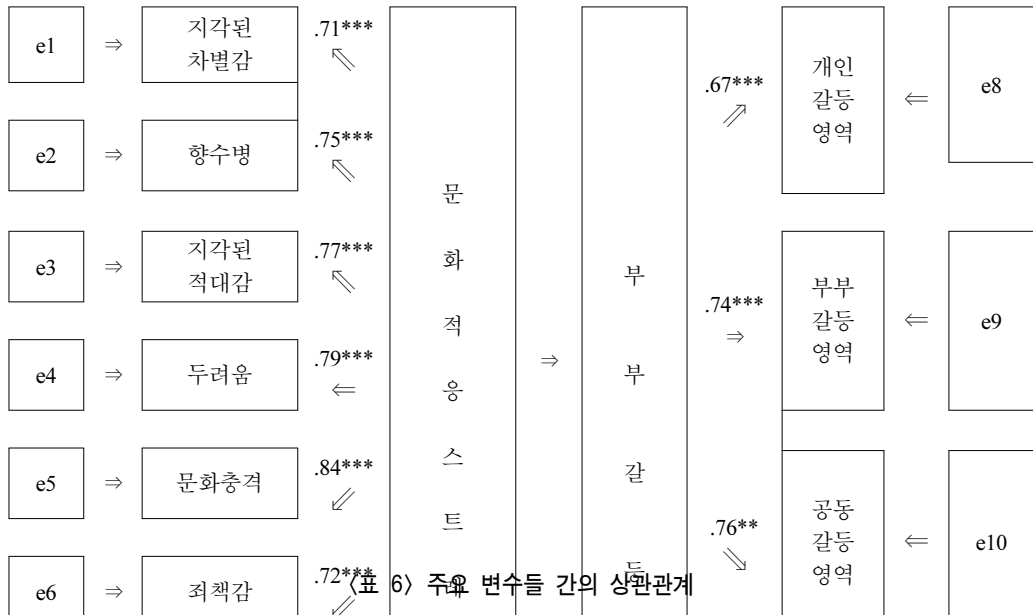


표 6)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연령	1											
2.남편연령	.252**	1										
3.결혼기간	.469***	.196*	1					.67***				
4.자녀수	.360***	.136	.535**	1								
5.최종학력	.252**	.231**	.120	.159	1							
6.가족월소득	.048	.068	.060	.185**	.283***	1						
7.문화적응스트레스	.066	-.002	-.039	-.152	-.007	.006	1					
8.정서적지지	-.003	-.081	-.098	-.043	.089	.093	-.107	1				
9.정보적지지	.067	-.054	.025	.129	.120	.002	-.311**	.429**	1			
10.평가적지지	.061	-.041	.029	.135	.175*	-.004	-.299**	.343**	.476**	1		
11.물질적지지	.001	-.044	.066	.032	.112	.049	-.129	.451**	.367**	.251**	1	
12.부부갈등	.031	-.127	-.144*	.069	.043	.060	.237**	-.014	.016	-.135*	.188**	1

*p<0.05, **p<0.01

〈표 7〉 직접효과모형의 적합도 및 분석결과

	χ^2	df	p	TLI	CFI	RMSEA (95% 신뢰구간)		
기초 모형	204.045	53	.000***	.987	.995	.10(.09-.12)		
경로			비표준화계수 B	표준화계수 β	SE	C.R.	p	
부부갈등←문화적응스트레스			0.423	0.745	0.061	6.811	.000	

***p<0.001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평가적 지지가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참조).

5. 〈가설 1〉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 1〉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직접효과모형 분석과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직접효과모형 분석

직접효과모형은 부부갈등에 대해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표 7〉은 이 모형의 적합도 및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형의 χ^2 값 보는 적합지표로 모형의 적합성을 파악하므로, 적합도 지수가 TLI=.987, CFI=.995, RMSEA=.10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은 부부갈등에 대해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미치는 직접효과를 구조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표준화 측정값은 .745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문화적응스트

〈표 8〉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Model 1		Model 2	
		B	β	B	β
통제변수	(constant)	2.520		2.500	
	연령	.111	.120	.111	.120
	남편연령	-.102	-.127	-.102	-.127
	결혼기간	-.159	-.176*	-.159	-.176*
	자녀수	.117	.159	.117	.159
	최종학력	-.025	-.054	-.025	-.054
	가족월소득	.052	.075	.052	.075
독립변수	문화적응스트레스			.445	.381**
R2		.074		.105	
Adj R2		.071		.098	
F		4.293***		3.925***	

*p<0.05, **p<0.01, ***p<0.001

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도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2) 위계적 회귀분석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남편연령, 결혼기간, 자녀수, 최종학력, 가족월소득 등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자기상관을 검증하기 위해 DW(Durbin 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1.604로 비교적 자기상관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분산확대요인(VIF)을 산출한 결과 모두 10.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1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모델의 설명력($R^2=0.074$)은 7.4%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결혼기간($\beta =-.176$)이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결혼기간이 길수록 부부갈등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2에서는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beta=.381$)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6. <가설 2> 검증

<가설 2>는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로,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과 함께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인 결

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 결과는 <표 12>과 같이 나타났다. 모델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모델의 설명력($R^2=0.045$)은 4.5%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결혼기간($\beta=.120$)이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앞선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했다. 모델 2에서는 통제변수에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모델의 설명력($R^2=0.099$)은 9.9%로 모델 1보다 모델설명력이 4.4% 증가했다. 문화적응스트레스($\beta =.298$)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앞선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했다. 모델 3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통제변수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을 투입하여 분석했다. 모델의 설명력($R^2=0.142$)은 14.2%로 모델 2보다 모델설명력이 4.3% 증가했다. 분석결과 물질적 지지($\beta=.324$,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물질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델 4에서는 회귀분석의 통제변수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을 투입한 다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모델의 설명력($R^2=0.158$)은 15.8%로 모델 3보다 모델설명력이 1.6% 증가했다. 분석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 중 물질적 지지의 상호작용항($\beta=.208$, $p<0.05$)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 중 물질적 지지가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종속변수인 부부갈등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표 9>참조).

V. 결론 및 제언

〈표 9〉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B	β	B	β	B	β
통제 변수	(constant)	2.594		2.604		2.842		2.756	
	연령	.044	.047	.044	.048	.067	.072	.057	.061
	남편연령	-.148	-.168	-.148	-.168	-.146	-.166	-.138	-.157
	결혼기간	-.185	-.192*	-.185	-.193*	-.182	-.191*	-.185	-.192*
	자녀수	.043	.058	.043	.057	.073	.098	.063	.087
	최종학력	-.025	-.054	-.025	-.054	-.015	-.032	-.013	-.028
	가족 월소득	.033	.048	.033	.048	.025	.037	.037	.048
독립 변수	문화적응 스트레스(A)			.357	.298**	.359	.300**	.364	.304**
조절 변수	정서적 지지(B)					-.060	-.070	-.048	-.057
	정보적 지지(C)					.024	.026	.020	.021
	평가적 지지(D)					-.202	-.229*	-.161	-.187*
	물질적 지지(E)					.349	.324**	.369	.343**
상호 작용항	A × B							-.157	-.105
	A × C							.045	.040
	A × D							-.117	-.080
	A × E							.238	.208*
R ²		.045		.099		.142		.158	
Adj R ²		.041		.090		.126		.140	
F		5.293***		5.359***		4.073***		4.264***	

*p<0.05, **p<0.01, ***p<0.001

본 연구는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을 위한 관련 부부갈등의 정도 분석결과에서 부부갈등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영역 및 변인은 개인적 영역에서는 특히 사고방식 및 가치관 차이(개인적 영역), 경제적 문제(공동생활영역),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제 삼자 영역), 성생활(부부관계영역)이다.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첫

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커지는 것을 파악되었는데,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둘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물질적 지지의 상호작용항($\beta=.208$,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물질적 지지는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종속변수인 부부갈등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 및 연구적 함의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일부 선행연구(심선진, 2004; 양선화, 2004; 신경희, 2005; 김오남, 2006)의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다. 이를 위해 그동안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대안이 논의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문화적응스트레스관련 상담 및 개입기법과 집단프로그램이 부부갈등을 감소하는데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나와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중 물질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 관계에서 조절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관련 센터, 복지관 등에서 사회적 지지 중 물질적 지지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 지지망 구축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지지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의 비공식적 자원체계, 동료, 집단 등의 공식적 자원체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적 자원체계에 대해 최대한 자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주된 한계점은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 매개효과 변수로 사회적 지지로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의 다른 변수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재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영역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 관련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현재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 측정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위영역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이외에도 사회적 자원체계이론에 근거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측정도구를 지속적 연구를 통해 개발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1) 강윤경(2012). 결혼이민여성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경수영(2010).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1), 399-421.
- 3) 공미혜·오세자(2010). 국제결혼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부산지역 베트남, 필리핀 여성과 한국 남성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2(2), 95-120.
- 4) 구치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권명희(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5(1), 275-302.
- 6) 권복순(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대구 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들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7) 김나영(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김민정(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 스트레스 및 가정폭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1-28.
- 9)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김영주·김희정·이현주(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건강상태 및 건강증진 방안 정책제언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1-128.
 - 11) 김은경(2010). 경남지역 결혼이민자의 부부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1-12.
 - 12) 김종국·조아미(2008). 새터민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5(2), 103-119.
 - 13) 남인숙·안숙희(2011).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2), 99-108.
 - 14)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박진옥(2011). 결혼이주여성가족의 부부관계 및 고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적응과 갈등.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양옥경·송민경·임세와(2009). 서울지역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37-168.
 - 17) 양혜승(2012). 이주노동자의 대인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이용이 문화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3(1), 55-95.
 - 18) 유희남·김영희(2011).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141-158.
 - 19) 이현우(2011). 결혼이주여성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조절효과 검증.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 이아진·최연실(2011). 문화적응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과 가족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71-90.
 - 21) 이영남(2011).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모역할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2) 이영실(1989). 도시부인의 부부갈등 제 요인과 성생활 불만족의 정도.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박사학위논문.
 - 23) 이은희(2009).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적응연구 : 탄력모델을 적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14(1), 73-94.
 - 24) 이지영(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5) 이진숙(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9(6), 919-932.
 - 26) 임은미·정성진·이수진(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상담학연구, 11(3), 957-973.
 - 27) 정정순(2011).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과 문화적응.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8) 조혜선(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적 요인 : 경제적 자원, 성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사회학, 37(1), 91-115.
 - 29) 최금혜(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0) 최연실·권용혁·김태성·우실희(2007). 한·중 국제결혼에서의 갈등과 적응 : 소외와 타자화의 체험에서 소통과 화합의 모색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51-299.

- 31) 최혜지(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63-194.
- 32) 추현화(2008). 결혼이주여성남편과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4), 85-101.
- 33) 한경남(2011). 다문화가정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4) 홍달아기·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 이민자의 가정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35) 홍미기(2008).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 사회적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6) Ataca & Berry(2002). Psychologic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13-26.
- 37) Berry. J. K. Kim, U. M., & Mok, D.(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on stres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36(1), 15-34.
- 38)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39) Berry. J. W.(2005).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acculturation, edited by Kevin M. Chun, Pamela Balls Organista and Gerardo Matin. Washinton D. C. Decade of Behavior. 17-38.
- 40) Breznsnyak. M. & Whisman. A. M.(2004). Sexual desire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 Th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and power.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30, 199-217.
- 41) Cabassa. L. J.(2003). Measuring Acculturation :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go. Hispanic Journal of Behavior Science, 25(2), 127-146.
- 42) Caplan. G and Killiea(1976). Support Systems and Mutual Help, New York : Grune and Stratton.
- 43) Cobb S.(1976). Social supporty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44)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45) Cordova Iasbel Maria(2006). The relationships of aculturation lvel, aculturative sress, and family processes with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ity. in Puerto Rican Youth Residing in the South Bronx. Columbia University. Ph.D.
- 46) Dean A., & Lin N.(1977). Stress-buffering roleof social support, Journal of Gerontology, 45, 102-111.
- 47) Finch(2003).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 to Unifamiliar Environment. 66.
- 48) Finch. B. K. & Vega. W. A.(2003). Acculturation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Rated Health Among Latinos in California. Journal of Immigrant Health, 5(3), 109-117.
- 49) Folkman. S. & Moskowitz. J. T.(2000). Stress, positive emption, and coping. Current Direction in Psychological Science, 9, 115-118.
- 50) Heller, K., Swindel, R. W. & Dusenburg, L(1986). Component social support processess : Comments and integration. Journal of Consulting of Clinical Psychology. 54.

- 51) Hovey. J. D. & Magana. C, G.(2002).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s :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8(3), 223-237.
- 52) Johnson, W. R., & Warren, D.(1994). *Inside the mixed marriage : Accounts of changing attitudes, Patterns, and Perceptions of Cross-Cultural and Interracial Marriages*. Luham, MD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53) Julien. D. Tremblay, N. Belanger, L. Dube, M. Begin. J. & Boithiller. D.(2000). Interaction structure of husband' and wife's disclosure of marital conflict to their respective best frien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 286-303.
- 54) Kagan. H, & Cohen, J.(1990). Cultural adjust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Psychological Science*, 1(2), 133-137.
- 55) Kaplan, H. B., Robbins, C. & Martin, S.(1983). Antecede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young adults : Self-rejection, deprivation of social support, and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Science*, 1(2), 133-137.
- 56) Killian, K.D.(2001). Reconstituting racial histories and identities : The narrative of interracial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 57) Krause, N, & Neal, A.(1997). Anticipat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economic stress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Social Gerontology*, 52B(6), 284-293.
- 58)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59) Menjivar. C.(2000). *Fragmented ties : Salvadorian immigrant networks*. in *America* Berk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60) Miranda. A. O. and Matheny. K. B (2000). Socio-psychological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immigrant and later generation college stud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 Science*. 9. 207-225.
- 61) Nah, K.(1993). Perceived problems and service delivery for Korean immigrants. *Social Work*, 38, 289-296.
- 62) Naidoo, J.(1985). A Cultural perspective on the adjustment of south asian women in Canada. In I. R. Langunes, & Y. H. Poortinga(ed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Studies of Behavior Across Cultures*. 76-92.
- 63) Neufeld. A. Harrison. J. M. Stewart. J. M. Hughes. D. K. & Spitzer. D.(2002). Immigrant women : Making connections to community resources for support in family caring.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2(6), 751-768.
- 64) Proulx. M. C. Helms. H. & Payne. C. C.(2004). Wives' domain specific marriage work with friends and spouses : Links to marital quality. *Family Relations*, 53, 393-404.
- 65) Redfield, R, Linton,& Herskovits, M.J.(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 66) Rhee. S. Chang. J. & Rhee. J. (2003). Acculturation, communication patterns and self-esteem among Asian and Caucasian American adolescents. *Adolescence*, 38(152), 749-768.
- 67) Sandhu D. S & Asrabadi. B. R.(1994).

-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68) Sprey, J.(1971). Conflict theory and the study on marriage and the family. in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II, N. Y : The Free Press.
- 69) Tartakovsky. E.(2007). A Longitudinal study of acculturative stress and home sickness : High school adolescents immigrating from Russia Ukraine to Israel without par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6), 485-494.
- 70) Thoitz, P. A.(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Soci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5-159.
- 71) Yeh. C. & Inose. M(2003). International students' reported english fluency social support satisfac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as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Counselling Psychology Quakterly, 16(1), 15-28.

- 투 고 일 : 2012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2년 10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11월 22일